미국중심 대중문화, 이젠 세계로 시선 돌린다

‘메인스트림’

프레데릭 마르텔 지음

K-POP은 아시아에서 대중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인스트림’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지화’와 ‘퓨전 미디어’. 하나 더. 잘생 긴 외모. ‘문화 전쟁’이라고 불리는 시대, 드라마 중심의 한류와 K-POP 중심의 한류가 미국 중심의 메인스트림 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저자 프레데릭 마르텔이 문화비평서인 ‘메인스트림’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한류만 풀어낸 것은 아니다. 베스트셀러와 히트곡, 블록버스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영화를 볼 때 팝콘과 콜라를 먹는 이유까지 문화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책은 ‘모두를 즐겁게 하는 그 문화에 대한 탐문’이라는 부제에 어울리게 전 세계 다양한 문화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일본·베이징까지, 이스탄불에서 인도 뭄바이를 거쳐 콩고 킨샤사에서 두바이를 훑어가며 탐문하는가 하면, 프라하에서 보스턴까지 전 세계 30개국 150여개 도시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돌아다니며 방대한 자료를 모아 내놓았다. 책 속에 담긴 1250명의 문화 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은 1부 ‘문화 산업의 지배자, 미국’과 2부 ‘문화의 세계대전이 시작되다’로 나눠 문화 산업의 최강자 미국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미국 중심의 메인스트림 문화에 도전하는 세계 여러 나라로 시선을 돌린다.

미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를 추적한 뒤 이에 대한 각 문화권에서 저항과 경쟁의 반작용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중 문화의 모태 가운데 하나로 ‘드라이브 인’으로 불린 자동차 전용 극장이 멀티플렉스로 바뀌어가는 과정과 팝콘이 등장한 배경, 멀티플렉스를 통한 펩시와 코카콜라의 경쟁, ‘토이스토리’에서 ‘라이온 킹’에 이르는 디즈니의 창작 산업, 오프라 윈프리 브랜드의 파워 등 미국 문화 산업을 자세하게 파고들었다.

저자는 이후 세계로 눈을 돌려 미국만이 주제가 아닌, 전 세계적 이슈가 된 콘텐츠 창작 산업의 새로운 지정학적 현상을 들여다보고 나름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쿵푸 펜더’를 언급하면서 ‘짝퉁’과 검열이 극심한 중국의 문화 산업과 정치적 관계를 탐문하는가 하면,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인 K-POP과 J-POP이 어떤 방식으로 아시아에 전파돼 영향력을 갖게되는 ‘현상’으로 발전했는지 등을 한국 주요 기획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TV 시리즈물이 한국에서는 ‘드라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텔레노벨라’, 카이로에서는 ‘라마단 연속극’이라고 불리는 이유와 파급력도 소개한다. 물론,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아랍 세계의 메인스트림 채널’ 알자지라 사무실이나 유럽의 안티 메인스트림 문화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아울러 세계화와 문화자본주의, 인터넷 혁명 등으로 상징되는 시대의 향방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아이폰 등 첨단 기술의 발달이 세계 문화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문학과 지성사·2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각각의 테마가 만들어낸 56개 도시 표정들

‘도시 수집가’

이명석·박사 지음

함께 책을 쓰는 이명석과 박사는 막강 콤비다. 두 사람의 책은 일단 재미있다. 북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고양이와 커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온 두 사람의 인문학적 내공도 만만치 않아 책은 적당히 진중하다.

두 사람이 특히 강세를 보이는 분야는 여행. ‘여행자의 로망 백서’, ‘지도는 지구 보다 크다’, ‘비포 컵라이즈 뉴욕’ 등을 함께 써온 두 사람이 이번에는 ‘도시 수집가’라는 책을 펴냈다.

두 사람은 가이드북을 따라 다리 찢어져 가며 온갖 명소를 여행하는 대신 각각의 도시에서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테마를 정했다. 도시마다 7개의 장소를 찾아 글을 쓰고 직접 그린 한장의 지도로 표현했다.

직접 발로 찾았던 도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다.

여행 경험, 영화, 드라마, 만화, 인터넷, 그곳에 다녀온 여행자의 이야기들이 다 책의 소스로 쓰였다.

그들이 수집한 도시는 56개다. 설록홈즈와 아가사 크리스티를 찾아가는 런던은 ‘미스터리와 탐정의 도시’다. 다치바나 다카시의 고양이 빌딩,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기억케 하는 소세키 공원, 미야자키 하야오의 흔적을 만나는 지브리 뮤지엄 행(行) 고양이 버스를 타는 도쿄는 ‘고양이를 품은 도시’다.

그리고 피카소 미술관과 후안 미로 광장을 포인트로 꼽은 바르셀로나는 화려한 ‘색채의 도시’다.

〈궁리·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춘들을 위한 삶과 사랑 그리고 문학이야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장영희 지음

3년전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의 글은 깊은 울림을 준다. 삶의 이야기를 잔잔히 풀어내며, 문학과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글이 갖고 있는 ‘진심’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전해졌다. 특히 수필집 ‘내 생애 단한 번’으로 ‘올해의 문장상’(2002년)을 수상하기도 했던 그녀의 문체는 단정하면서도 매력적이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 등 문학 에세이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녀의 강의록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묶인 책은 강의내용을 녹취해 정리한 책으로 장 교수가 전하는 인생과 문학 이야기다.

서강대에서 오랫동안 영문학을 가르쳤던 그녀는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은 ‘책’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챨스 디킨스의 소설들, 허번 멜빌의 ‘모비딕’ 등 문학 작품을 통해 세상 사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인생을 살면서 힘이 들 때마다 떠올렸던 문학 작품 속의 구절들을 전한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다.

장영희의 삶을 인터뷰식으로 엮은 마지막 장과 책갈피갈피마다 실린 강의노트와 방안의 소품들은 지금은 우리곁에 없는 그녀를 오랫동안 추억케 한다.

〈예담·1만2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도덕적 가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지음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동의하기 싫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 서점가를 평정했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이번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들고 국내 독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자화상을 들춰내는 책으로, 샌델 교수 특유의 명쾌한 논리, 풍부한 사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항공사의 우선 탑승권이나 놀이공원의 우선 이용 허가권 등 새치기 권리를 공공연히 팔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가 하면, 말기 불치병 환자를 놓고 벌이는 생명보험 전매시장 등의 예도 적시했다. 샌델은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의 지배를 받았던 영역까지 돈으로 사고 팔면 도덕적 가치가 밀려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와이즈베리·1만6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일탈’의 편안함, 가슴으로 느껴라

‘여행, 그들처럼 떠나라!’

박범신 외 지음

서점 여행서 코너에 멈추면 선택의 고민에 빠진다. 꼭 찍어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십여 종류의 여행서적, 내용도, 사진도 비슷한 게 적지 않다. 이 때문인지 국내 유명 작가들이 쓴 여행기는 색다르게 다가온다.

‘여행, 그들처럼 떠나라!’는 박범신, 김용택, 강은교, 조정래, 이문열, 김탁환, 김주영, 이순원, 하성란, 함민복, 하일지, 구효서, 성석제, 정호승, 고 은 등이 솔직담백하게 쓴 여행기다. 완도 청산·소안도, 화순 운주사, 강진 다산초당·마량항 등 익숙한 여행지지만 책을 읽고 나면 느낌이 색다르다. 완도군 청산도를 찾은 박범신은 “여행이 좋은 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해야 하는 일상과 달리, 그저 가슴으로 느끼면 되는 ‘일탈’의 편안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 가본 데라도 한 번 더 둘러보고 싶기도 하다. 주요 여행지에 대한 사진과 음식 정보도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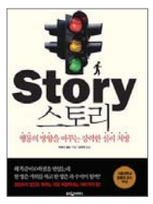
〈동양북스·1만65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스토리’

‘스토리’

티모시 윌슨 지음



어떻게 해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자녀를 둔 부모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부하 직원을 둔 사장 등 모두가 궁금해한다. 원하는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칭찬을 해주는 것부터 때로는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과 교수인 티모시 윌슨은 ‘스토리, 행복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심리 처방’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상이나 통제가 아니라 마음에 어떤 ‘스토리’를 심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심리의 스토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줄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뜻한다.

책은 개인적 내러티브(personal narrative)라고도 하는 자기 스토리가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개인적 내러티브를 조절해 변화를 불러오는데 도움이 되는 글쓰기 요법·자기 파괴적 사고 패턴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인 스토리 단서 주기·사람들의 행동부터 먼저 바꾸게 하는‘선행 실천’법 등 심리와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 접근법’ 등이 눈길을 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우리가 잃어버린 천재화가, 변월룡=샤갈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러시아 최고의 명문 레핀미술대학에서 학생부터 박사 학위까지 받아 교수까지 오른 한국인, 변월룡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책. 미술평론가 문영대씨가 1916년 러시아 연해주의 어느 한인 유랑민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냉전 시대 소련 땅에서 살면서도 죽을 때까지 한글 이름을 고집하고 자신의 그림마다 한글을 새겨넣을 정도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변월룡의 삶을 들여다봤다.

〈컬처그라퍼·1만8000원〉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지난 24년간 파주출판도시 건설에 앞장서 온 이기웅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의 책과 출판도시에 대한 비전을 담은 책이다. 지난 2001년 출간된 같은 제목의 책에 이어 12년만에 나온 두 번째 이야기다. 저자가 여러 지면을 통해 발표한 파주출판도시와 관련된 글 90편이 실렸고 도시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쓴 보고서나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해 논한 칼럼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담겼다. 〈출판도시문화재단·3만원〉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 1~8=영국의 문명비평가이자 역사가인 아널드 죠셉 토인비(1889-1975)가 저술한 ‘역사의 연구’(전 8권)에 대한 D.C. 서머벨의 축약본을 국내 최초로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고 완역해 내놓았다. ‘역사의 연구’는 집필에만 27년, 사전 구상 기간까지 포함하면 장장 40년에 걸쳐 쓰인 토인비 평생의 역작으로, 문명과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내놓는다. 〈더스타일·각 권 5900원〉

▲다이아몬드 원맨쇼=전작 ‘마지막 형사’에서 치밀한 플롯과 허를 찌르는 반전, 참신한 유머로 ‘플롯의 제왕’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피터 러브시가 스케일과 액션을 더해 더욱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피터 다이아몬드가 실직한 전직 수사관으로 돌아와 첨단 기술을 거부하는 고집스럽고 괴팍한 형사의 모습을 벗고 한층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캐릭터로 거듭난다. 〈검은숲·1만3500원〉

▲처음 만나는 우리문화=서원대 석좌교수를 지낸 역사학자 이이화씨가 한국의 역사 문화 전반을 폭넓게 다룬 교양서로, 한국인의 뿌리·도시와 장터·왕실문화와 서민문화 등 여덟개 분야에 걸쳐 우리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본다. 옛날이야기처럼 구수한 문화 스토리로 대중들에게 역사를 쉽게 ‘이해’시킨다.

〈김영사·1만5000원〉

▲아이와의 기싸움=아이와 부모들의 기싸움은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제압하더라도 유쾌하지 않지만 지기라도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20년 이상 자녀교육 분야 전문가인 메리 커신카가 펴낸 ‘아이와의 기싸움’에서 부모는 이기고 지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 아이의 마음을 읽고 적절하게 표출하도록 이끌어주는 ‘감정 코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라이프·1만5000원〉

어린이 책꽂이

▲삐뚤어질거야=반에서 세 번째로 작고 성적도 보통인 경민이. 예쁜 짝궁에게 잘 보이려고 시험 점수를 올리기로 결심하지만 실수하는 바람에 국어에서 전교 꼴찌를 하고 친구들의 놀림도 받는다. 엄마는 형과 비교하면서 경민이만 나무란다. 속상한 경민이, 가출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버린다! ‘삐뚤어질거야’는 아이들에겐 평범한 일상도 어떤 험난하고 특별한 모험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시공주니어·9000원〉

▲네가 해줘, 캣봇=고양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로봇, 캣봇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다. 기계에만 의존하는 편리한 삶이 사람과 자연 모두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환경 그림책이다.

〈푸른숲 주니어·1만1000원〉

▲박수근의 바보온달=아이들에게 책 한 권도 마음대로 사줄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화가 박수근이 자녀를 위해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들어낸 책을 박수근 47주기를 기념해 박인숙씨가 다듬어 펴냈다.

〈사계절출판사·1만2800원〉

▲아기곰 이빨이 흔들거려요!=이빨에 걸린 실을 두고 빚어지는 아이와 부모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크게 다칠 지 모른다는 아이의 두려움과 치열이 나빠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힘껏 잡아당기지 못하는 부모. 익숙한 우리네 풍경을 아기곰과 숲 속 친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어린 곰이 덩치 큰 올빼미와 오소리 등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빨 빼기에 성공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묘사했다. 〈주니어RHK·9000원〉

▲너 뭐하고 노니?=요즘 아이들, TV와 휴대폰, 게임기에 푹 빠져 산다. 이런 게 없는 데라도 간다면 당장, 심심하다, 할 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책은 TV도 컴퓨터도 없는데 장난감 자동차 하나로 재미있고 신나게 노는 아이의 이야기다. 베라 루시아 디아스는 책을 읽고나면 ‘너라면 어떻게 놀거야’라는 질문을 던져볼 것을 권한다. 아이들의 상상력 앞에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푸른길·1만원〉